

# 마르크스와 교육, 지식인

탈근육

마르크스는 당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자본주의라는 생산시스템에서 찾았으며 사회변혁은 그것의 변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지적 성장(혹은 퇴보)의 최신 결과물이 아니다. 역사는 인간의 지적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를 통해 자연에 적응하여 온 변화의 기록이다. 오히려 인간의 지적 성장이 그 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변혁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지적 발전, 혹은 확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저항은 그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착취당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는 항상 반드시 저항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이라는 준엄한 단련의 학교를 헛되이 다니지 않는다... 대부분의 영국 및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의식하고 있고 이 의식을 또렷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술할 필요는 없겠다(Marx & Engels, 1845: 104).

그 저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면 그들 스스로 배운다. 아직 적절한 지식이 없다면 적절한 지식을 만든다. 만들 수 없다면 만들도록 강제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을 그렇게 강제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람시의 '노동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이 그와 같은 지식인을 지시하는 개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지 그들의 계몽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투쟁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요할 텐데,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테제는 오히려 분출하는 투쟁을 봉쇄하거나 현존하는 투쟁을 맹목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